



주 제:	“목마름”	“사순 제 3주일”	2008년 2월 24일
복음 묵상:	마태 17,1-9	창세 12,1-4 7	2 티모 1,8 1-10

하느님이 인간이 되심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목말라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반면에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갈증은 하느님을 만나기 전까진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당신의 끊임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우리들의 메마름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몸에서 1~2%정도의 물이 빠져나갈 때라고 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물이 빠져나가도 우리 몸은 이를 알아채고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민감하게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욕망은 우리를 더욱 갈증 나게 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결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 삶으로 우리가 마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물을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물이 있다. 와서 마셔라” (군중 한사람의 신부님 강론중에서)

일요 기도회	매주 교중미사후 레지오실	2008년 2월 24일(일요일)
진행: 박혜숙 소피아	복음 묵상: 요한복음 4: 5	시편 묵상: 84 편

나눔

- * 예수님의 영성적인 물음에 인간적으로 대답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도록 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함 선교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의 삶이 혹 동문서답하는 양상이 아닌가 되돌아보며,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충실하게 수확할 수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 * 목마름, 갈망,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깊은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녀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 거침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님께서 친히 기다리시고 만나 주시며 복음 전파자로 쓰심을 묵상하며, 외로움은 오로지 주님으로서만 채워질 수 있기에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기다리시는 주님 알리는 복음 전파자로 파송되길 기도합니다.
- * 깨어진 항아리가 연못속에 던져져 물이 담기게 되는 것과 같이 나의 부서진 부분을 주님께 던짐으로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희망이 됩니다.
- * 삶의 관계안에서 어렵고 불편한 마음 때문에 주님을 향한 빛을 못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최선이 무엇인지 하느님께 물으면서 오히려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 *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괴심에 힘들어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고 굳이 말합니다. 혹 사람들의 그 말로서 그 여인이 아픈 기억하고 상처받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그 여인이 애처롭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 여인 삶의 ‘사실’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 내면 깊숙한 마음의 아름다움을 알아 주셨기에 그 여인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제 마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중재기도

- 청소년들을 위하여
- 친구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정녕 당신 앞뜰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시류에 맞추어 살기 보다는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 위하여

공지사항

- 3월 8일 토요일 북가주 성령기도회 일일피정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산호세 기도회 회장(강 글라라 자매님) 또는 총무(박 알베르또 형제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17일 산호세 성령기도회 일일피정이 Vallombrosa Center 에서 있습니다.

+ 복음 [마태 17,1-9]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 그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1분 명상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하신 것처럼
주님, 제게도 당신이 먼저 한 잔의 물을 청하시듯
조용히 말을 건네 오시렵니까?

저는 죄인이기에

용기가 부족함을 당신은 아시오니
제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의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도 직접 당신께 듣고 싶사오니
어서 말씀하여 주소서,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향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어섭니다.



“Whoever drinks the water I shall give will never thirst.”(John 4,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